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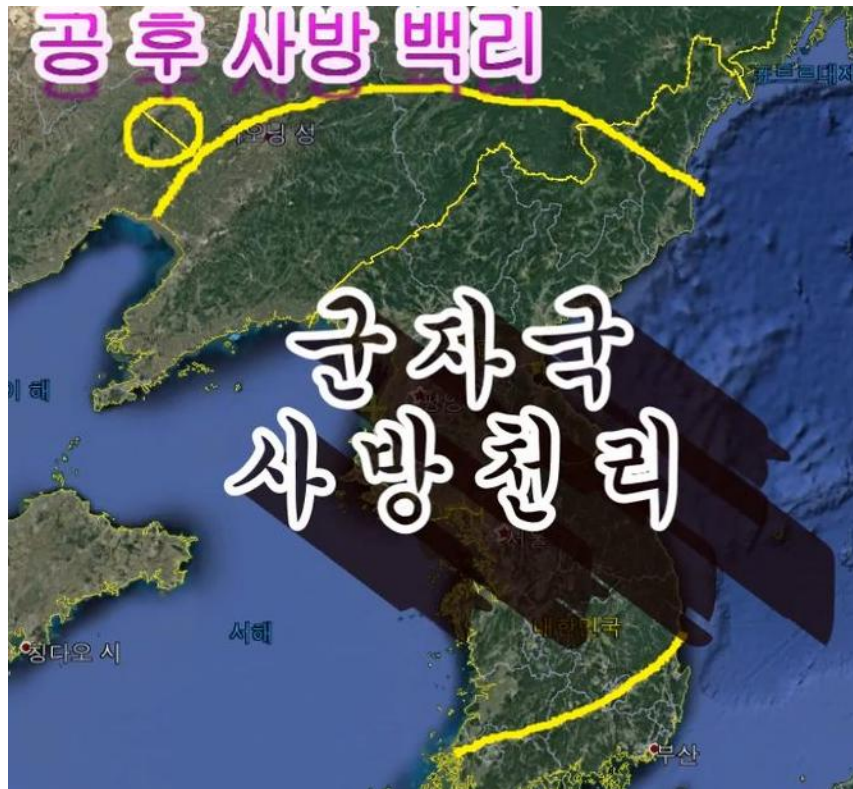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V. 나가는 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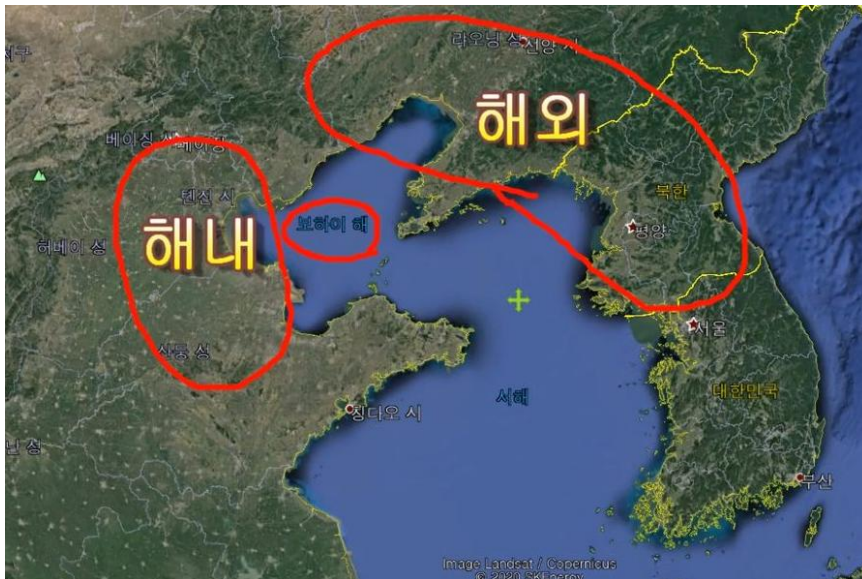
『관자管子』 〈소문小問〉

옛날 천자는 중앙에 있어
지방천리를 다스린다.
昔者天子中立 地方千里

『회남자』 〈지형훈隆形訓〉

동쪽에는 군자국이 있고,
동남쪽에서 동북쪽으로 대인국,
군자국, 흑치민, 현고민, 모민, 노민이 있다.
東方有君子之國 … 自東南至東北方 有大人國
君子國 黑齒民 玄股民 毛民 勞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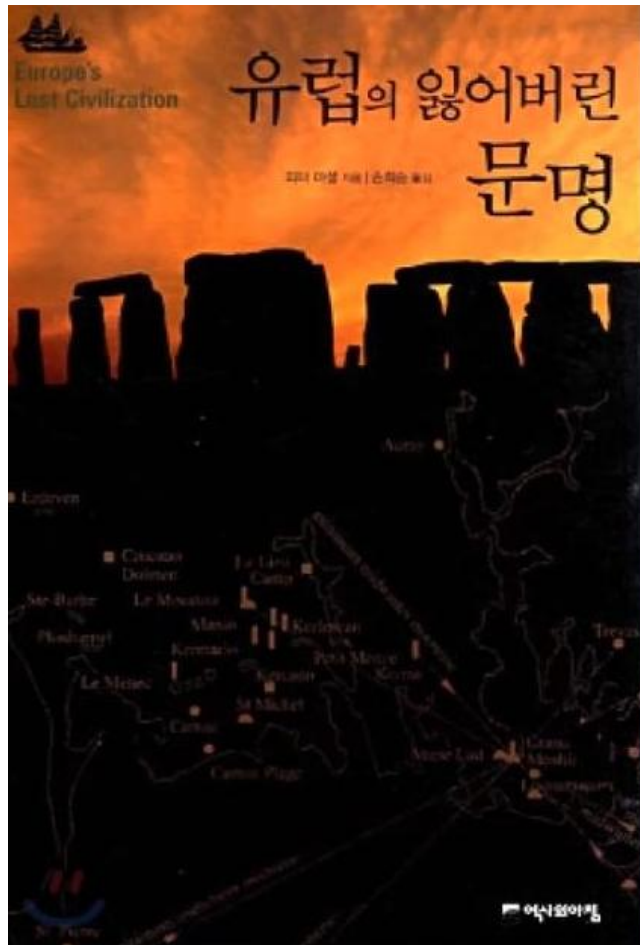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산해경山海經』 〈해외동경海外東經〉

해외의 동남쪽 귀퉁이에서
동북쪽 귀퉁이에 이르는 지역.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찬다.
짐승을 먹고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부리며
결에 둔다. 그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무궁화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海外自東南隅至東北隅者...君子國在其北衣冠帶劍
食獸 使二大虎在旁 其人好讓不爭 有薰華草 朝生夕死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기원전 9000년경 빙하시대가 끝나고
빙원이 물러날 무렵, 인류는 북유럽
탐험에 나섰다. 주로 바다를 통해 와서
강을 따라 탐험했다. 기원전 6500년경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30미터 이상 올라갔다.

아일랜드와 영국을 유럽 대륙과 연결하던
땅이 잠겼다. 대서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북해로 흘러 들어갔다.

-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 35쪽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해양족 남색족의 이동



동이 - 산둥반도쪽 동이 = 남색족
만주동이 = 혼혈

산둥반도의 동이는 태평양 섬들에 사는
폴리네시아Polynesia 사람들의 특징 있음

전 세계 고대문명이
비슷한 이유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한서』〈율력지律曆志〉

창림은 창의를의 아들이다.

천하에서는 고양씨라 한다.

蒼林昌意之子也 ... 天下號曰高陽氏

창성할 창昌 = 푸른 나무들이 우거짐 = 남색 암시

황제 헌원은 원래 창제로 남색족
그 자식들 역시 남색족.

25명의 자식들 가운데

청양(=현효=소호)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남색족

『예문류취』〈염제신농씨〉

〈춘추명력서〉에 전하길 신인이 있어 석년이라 이름 지었다. 얼굴은 푸른빛에 눈썹이 크며 옥리를 머리에 이었다. (옥리는 옥영과 같은데 신농씨이다)

《春秋命歷序》曰 有神人 名石年 蒼色大眉 戴玉理
(玉理 猶玉英 神農也)

듣기 제어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대대례기』 〈오제덕〉

공자왈 전욱은 황제의 손자로
창의의 아들이며 고양이다.
용을 타고 사해를 다녔고
북쪽으로 유릉, 남쪽으로 교지,
서쪽으로 유사, 동쪽으로 반목
孔子曰 顓頊黃帝之孫昌意之子也
曰高陽 ... 乘龍而至四海
北至於幽陵 南至於交趾
西濟於流沙 東至於蟠木

『삼국사기』 〈김유신열전金庾信列傳〉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소호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庾信碑亦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 同姓也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사기의 족보

헌원 -(장남)소호금천(청양,현효)-교극-제곡고신-요

- 설契 은나라

- 직稷 주나라

- 신라 - 금 - 청

헌원 -(차남)창의-고양- ~ -고수-제순

- 곧 - 우 하나라

- 고구려, 백제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순임금이 중앙국 2대 제로 즉위했으나 장남 소호가문의 서쪽 고망국과 차남 창이가문의 아메리카 부락국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씨춘추呂氏春秋』 《사용론士容論》 <무대務大>에 순은 해외를 복속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제위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고 했을 것이다.

옛날에 제순은 바다밖의 나라들을 복속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제의 지위를 이룬 것에 만족해야 했다.

昔有舜欲服海外而不成 既足以成帝矣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요임금 때의 대홍수로 인해 중앙국의 수도가 발해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현원의 첫 도읍은 탁록이었는데 여기도 황해바다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요하문명의 하류에 있던 초기 군자국의 수도가 가라앉은 것이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본다. 『사기』 <봉선서封禪書>에 삼신산은 발해 속에 있다고 하니 발해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는 말이다.

(제나라)위왕·선왕·연나라 소왕 이래로 사람을 시켜 바다로 들어가서 봉래·방장·영주를 찾게 하였다. 이 삼신산은 발해 속에 있다고 전해지며
自威 宣 燕昭 使人入海求蓬萊 方丈 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勃海中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통일한 전세계를 고망국, 중앙국, 부락국의 셋으로 나눠 통치했다고 『열자』 <주목왕>에 나온다. 고망국에 해당하는 서쪽 1만 2천리는 헌원의 장남이며 신라 김씨의 시조인 소호금천이 다스렸다고 『회남자』 <시척훈>에 나온다. 동쪽 부락국은 헌원의 둘째 아들이며 전옥고 양의 부친인 창의가 다스린 것으로 보인다. <오제본기>에 좌우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고 했으며 또한 두 아들 모두 천하를 얻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중앙국 1만리는 헌원이 직접 다스리다 전옥에게 물려주었고 제곡고신, 요, 순임금까지 해서 <오제본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오제본기>는 한족의 역사가 아닌 동이족의 중앙국 역사를 쓴 것이다.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西極之南隅有國焉(서극지남우유국언)

서쪽 끝의 남쪽 모퉁이에 한 나라가 있다.

不知境界之所接(부지경계지소접) 名古莽之國(명고망지국)

이 나라의 국경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고망국**이라 한다.

陰陽之氣所不交(음양지기소불교) 故寒暑亡辨(고한서망변)

음양의 기운이 서로 교류되지 않으므로 추위와 더위의 차이가 없고,

日月之光所不照(일월지광소부조) 故晝夜亡辨(고주야망변)

햇빛과 달빛이 비치지 않으므로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

其民不食不衣而多眠(기민불식불의이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지만, 잠을 많이 잔다.

五旬一覺(오순일각)

50일 만에 한 번씩 깨어난다.

以夢中所爲者實(이몽중소위자실)

꿈에서 한 일을 사실이라 생각하고,

覺之所見者妄(각지소견자망)

깨어나서 눈으로 본 일을 다 허망하다고 생각한다.

四海之齊謂中央之國(사해지제위중앙지국)

또 사방의 거리가 똑 같은 나라를 **중앙국**이라 한다.

跨河南北(과하남북)

큰 강이 남쪽과 북쪽에 걸쳐 흐르고,

越岱東西(월대동서) 萬有余里(만유여리)

높은 산이 동쪽과 서쪽에 있어서 지방이 모두 만 여리에 이른다.

其陰陽之審度(기음양지심도) 故一寒一暑(고일한일서)

음양의 도수가 분명하므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다.

昏明之分察(훈명지분찰) 故一晝一夜(고일주일야)

암흑과 광명의 구별이 분명하므로 낮이 되기도 하고 밤이 되기도 하다.

其民有智有愚(기민유지유우)

그 나라 백성들은 지혜도 있고 어리석기도 하다.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萬物滋殖(만물자식) 才藝多方(재예다방)
온갖 물건이 번성한다. 재능도 여러 방면에 있다.
有君臣相臨(유군신상림) 禮法相持(예법상지)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기도 한다. 예의도 서로 차리고 법률도 서로 지킨다.
其所云爲(기소운위) 不可稱計(불가칭계)
그들이 말도 하고 일도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一覺一寐(일각일매)
이 나라 백성들은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잠자고 있다.
以爲覺之所爲者實(이위각지소위자실) 夢之所見者妄(몽지소견자망)
낮에 깨어 하는일을 사실이라 하고, 꿈에 보는것을 다 허망한 것이라 한다.
東極之北隅有國(동극지북우유국), 曰阜落之國(일부락지국)
동쪽 끝의 북쪽 모퉁이에 한 나라가 있는데, 나라 이름을 **부락국**이라 한다.
其土氣常燠(기토기상옥) 日月餘光之照(일월여광지조)
그 땅은 언제든지 따뜻하고 햇빛과 달빛이 언제든지 비취고 있다.
其土不生嘉苗(기토불생가묘)
그 땅에는 아름다운 곡식의 이삭도 나오지 않는다.
其民食草根木實(기민식초근목실)
그나라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열매만 먹고,
不知火食(부지화식)
불을 때서 밥을 해 먹을 줄 모른다.
性剛悍(성강한) 彊弱相藉(강약상자)
성질들이 강하고 사나워 약육강식을 한다.
貴勝而不尚義(귀승이불상의)
그러므로 싸워서 이기는 것만을 좋게 여기고 의리를 숭상하지 않는다.
多馳步(다치보) 少休息(소휴식)
흔히 분주히 뛰어 다니고 휴식이 적다.
常覺而不眠(상각이불면)
항상 깨어 있고 잠을 자지 않는다.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후한서』에도 평양은 요임금의 도읍이라고 나오니 무진년 평양에
도읍한 단군은 요임금일 가능성도 있다.

평양후국에 철이 난다. 요의 도읍지이다.

平陽侯國 有鐵 堯都此